

“도민 안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전남소방, 예비소방관 159명 채용 화재진압·인명구조 등 실무 교육

전남소방본부 소속 제7기 신규 임용예정자들이 1일 지역의 안전을 책임질 소방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예비소방관은 총 159명으로 내년 2월 19일까지 신입 소방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과 재난 현장 활동에 필요한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처치 등 실무 교육을 받는다.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정식 소방공무원으로 임용 후 일선 소방서에 배치돼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활동에 투입된다.

입교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기침·발열 등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이뤄진다.

정사 곳곳에 손 소독제 등도 비치돼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교육을 펼친다.

전남소방은 올해 총 519명의 신입 소방공무원을 채용했다.



전남소방본부 신규 임용예정자들이 1일 입교식을 하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합격자는 5차례에 걸쳐 전남·중앙·광주소방학교 등 3개 학교에서 신입 교육을 받는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과 교육생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강대, 동영상 강좌·전자책 우수 이용자 시상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재학생들이 다양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5회 동영상 강좌 및 제6회 전자책(e-book) 우수 이용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동강대 도서관(관장 지혜란)은 최근 2층 자료실에서 한 달간 전자 도서대출 회수가 많은 재학생 10명과 사이버학습관 365의 동영상 강좌 수강 상위 5명 등을 시상하고 부상도 전달했다. <동강대 제공>

전남대병원 김희정 간호사 석사 논문, 대한내과학회지 게재

전남대병원 간호사의 석사학위 논문(지도교수 정명호 순환기내과 교수)이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렸다.

심장센터 심초음파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정 간호사의 논문은 '한국인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좌심실 비대의 형태학적 분류에 따른 임상경과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전남대 보건학협동과정(2018-2019년) 석사학위 논문이다.

지난 2010년부터 심초음파실에서 근무해 온 김희정 간호사는 전남대병원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 심초음파 검사를 받고 2년간 추적 검사가 가능했던 환자 850여명을 대상으로 좌심실 구조가 정상인 환자와 좌심실



비대가 있는 환자를 구분해 임상적 경과를 관찰·분석한 결과를 논문에 실었다. 연구 결과 좌심실 비대는 환자의 예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으며, 심장 사망을 비롯한 재입원·심근경색증 재발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좌심실 비대 형태 중 편심성 비대군은 환자의 사망률이 높아서 주의 깊은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밝혀졌다. /재희홍 기자 chae@kwangju.co.kr

“코로나 극복” 광주 신창동 가구의 거리 연합회 경매 수익금 기부

광주 광산구 신창동 가구의 거리 상인들이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돕고자 경매 수익을 기부했다.

1일 광산구에 따르면 신창동 가구의 거리 연합회가 경매 수익금 115만원과 50만원 상당의 거실장을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에 기탁했다.

연합회는 지역 주민이 가구거리에 전한 사랑을 돌려주고자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세 차례에 걸쳐 경매 행사를 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경매를 열어 서랍장 등 소비자가 주로 찾는 가구를 판매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상인들도 힘들 텐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기부행렬에 앞장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신창동 가구의 거리는 1998년 창고형 매장이 들어서면서 형성됐다.

광주에서 유일하게 가구 상인들의 연합회가 꾸려졌

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광산경제백신 펀드’에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인사

◆대법원

<승진>

- ◇법원서기관 ▲전주지방법원 배석기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서석웅 ▲전주지방법원 유현수
- <전보>
- ◇법원부이사관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환
-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광주지방법원 김정필
- ◇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김정학 하정환 최신희
-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광주지방법원 공경배 서두현

‘광주학생독립운동’ 윤창하 선생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

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참여한 윤창하(1908년 4월 9일~1984년 12월 29일) 선생을 1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서 일본인 학교인 광주중 학생이 광주고등보통학교(이하 광주고보) 학생을 밀친 것이 도화선이 됐으며, 11월 3일 광주 시내서 항의 시위로 시작해 이듬해 3월까지 전국 학생 시위로 이어졌다.

전남 해남 출신인 윤 선생은 광주고보 3학년 재학 중 시위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정부는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한 바 있다. /연합뉴스



이달의 5·18민주유공자에 故 오정순씨 선정



고(故) 오정순씨가 최근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소장 유형선) 12월 이달의 5·18민주유공자로 선정됐다.

오씨는 당시 운암동 고속도로 입구 근처에서 거주했다. 거리에서 총격전이 자주 벌어지자 집을 지키고 있었으나, 계엄군이 무차별로 쏜 총탄이 집안 화장실 문을 뚫고 날아들어 총상을 입고 숨을 거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TV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⑥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00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생활속 오늘 아침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3부	50 찬란한 내 인생(재)	35 불새 2020
⑨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누가 뭐래도(재) 40 지구촌 뉴스	45 나를 사랑한 스파이(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⑪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공감 스페셜(재) 55 UHD 승터	00 도도술술라라술(재)		00 애니갤러리 30 애니메이션 런닝맨 스페셜 45 라바 아일랜드
⑫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00 12 MBC 뉴스 20 반짝이는 프리채널 50 뽀빠리 친구구 스페셜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①	00 시사 직격(재) 50 KBS 재난방송센터	20 영상앨범 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신비한 자연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②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2020 전국 어린이 판소리 왕중왕대회			00 뉴스브리핑
③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장만기 쉬움말 여매요? 25 이 맛에 산다	
④	00 사사건건	00 TV는 사랑을 싣고(재)	00 기본 좋은 날(재)	00 브라보 마이 라이프(재)
⑤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도그래피	00 신비아파트 고스트볼 더블X 여섯개의 예언 30 꿀잼 영화가 좋다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15 액션캠	00 SBS 오뉴스 35 KBC 저녁뉴스 50 남도에 가요 다시보기
⑥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5 0매 전라도	45 닥터 365 50 해양치유 포스트 코로나의 희망
⑦	00 뉴스7 광주전남 40 미니다큐	50 비밀의 남자	15 찬란한 내 인생 5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⑧	05 집중 인터뷰 이사람 30 누가 뭐래도	30 TV는 사랑을 싣고		30 KBC 8 뉴스
⑨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30 바림피면 죽는다	20 나를 사랑한 스파이	00 트롯신이 떴다 2 라스트 찬스
⑩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더 나은 삶 안전한 대한민국 더 라이브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40 라디오스타 1~2부	35 백중원의 골목식당 1~2부
⑪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50 스튜디오 K		
⑫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40 통합뉴스룸 ET(재)	15 특집 함께 사는 세상 희망 프로젝트 나누면 행복	10 나이트라인 40 사직페스티벌 비대면 미니콘서트(재)

EBS1

05:00 왕초보 영어	12:00 EBS 정오뉴스	18:00 생방송 특!톡! 보니 하니
05:30 클래스 e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19:00 위 베어 베어스 : 곰 버라이어티
06:00 한국기행	12:25 지식채널e	19:30 자이언트 팽TV
06:20 세계테마기행	12:30 클래스 e	19:45 가족이 맞습니다
07:00 꼬마버스 타요	13:00 EBS 다큐프라임	20:35 아주 특별한 기행
07:15 출동! 슈퍼핑크	13:55 EBS 초대석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7:30 뽀빠리 뽀빠리	14:45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	<집이 있는 풍경 -오래된 지혜, 터기 흙집>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5:45 몬카트	21:30 한국기행 <산골 밥집 3부 역세 집엔 채옥씨가 산다>
08:00 당동명 유치원	16:15 올리 앤 문	21:50 EBS 다큐프라임
08:30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16:30 당동명 유치원(재)	22:45 극한직업
08:45 위인극장 리턴즈	16:50 해오와 해오	23:35 EBS 비즈니스 리뷰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7:00 EBS 뉴스	23:50 클래스 e
10:30 한국기행(재)	17:20 마사와 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30 출동! 슈퍼핑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일(음 10월 18일 己卯)

<p>36년생 부화뇌동하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 48년생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할 문제이다. 60년생 부수적인 것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다. 72년생 오랜 습관의 벽에 갇혀있지 말고 과감히 뛰쳐나와야 한다. 84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96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6, 53</p>	<p>42년생 즐겁고 경사스런 소식이 들려오리라. 54년생 매우 소중히 여겨야겠다. 66년생 긍정적인 상황으로 전개 되리라. 78년생 기본적인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해야겠다. 90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02년생 돌발적인 변수가 많음을 감안 하자. 행운의 숫자 : 36, 54</p>
<p>37년생 하등에 우려할 바가 아니다. 49년생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니 각오하고 임하자. 61년생 음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기이니 신중을 거듭하라. 73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85년생 습관화 된다면 손 기능을 하리라. 97년생 완전하게 고칠 필요가 있었다. 행운의 숫자 : 29, 97</p>	<p>31년생 조금만 더 진행하고 있으면 원하던 단계에 이르게 된다. 43년생 공을 들여왔던 바가 공극적인 결실을 보게 되리라. 55년생 반드시 작용하고 있는 바가 있다. 67년생 맹목에 놓이지 않아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79년생 애초에 마음먹은 대로 추진하는 것이 유익하다. 91년생 도움이 되지 않는바. 행운의 숫자 : 27, 67</p>
<p>38년생 세심하게 정리 정돈해야 할 때다. 50년생 외출을 삼간다 면 면해겠다. 62년생 가능성이 미약하므로 아예 시도하지 않는 편이 낫다. 74년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86년생 제 눈썹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느니라. 98년생 큰일 나는 수가 있다. 행운의 숫자 : 63, 77</p>	<p>32년생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행하는 것이 실속 있다. 44년생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되겠다. 56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여왔던 바를 반갑게 맞이하리라. 68년생 행방이 묘연하니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살펴야겠다. 80년생 새로운 길목에 들어선다. 92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한 후에 행하는 것이 옳다. 행운의 숫자 : 44, 83</p>
<p>39년생 안분지족 할 줄 알라. 51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 될 수도 있다. 63년생 술은 꿀 때 걸러야 하느니라. 75년생 본뜻을 제대로 파악해야 대국의 조성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 87년생 미봉책은 두 번 일을 하게 한다. 99년생 거추장스럽다면 두 말 없이 청산하라. 행운의 숫자 : 17, 82</p>	<p>33년생 착실하게 진행한다면 일한 결실을 거두게 될 것이다. 45년생 기존 상황을 재편성할 만한 획기적인 일이 벌어진다. 57년생 만사여의로다. 69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자. 81년생 정확한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93년생 한 가지를 해결하고 나면 연쇄적으로 술술 풀리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01, 98</p>
<p>40년생 상대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별도로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느니라. 52년생 숙단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64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76년생 보류되어 왔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다. 88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00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49, 51</p>	<p>34년생 아직 설익었으니 일이 즐겁지 못 할 것이다. 46년생 겸손하지 않는다면 충동이 빛이면서 심기가 불편하리라. 58년생 발걸음 말고 끝까지 완구하고 있어야 한다. 70년생 쓴 맛을 보게 되리라. 82년생 활력이 넘치면서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마련 한다. 94년생 입주의 여지가 없었다. 행운의 숫자 : 15, 64</p>
<p>41년생 함께하자. 53년생 자제한다면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 하겠다. 65년생 예상하지 못했던 신기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77년생 인연은 새로우나 기대할 바는 못 된다. 89년생 밝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주는 이가 나타날 것이다. 01년생 넘치려는 것은 반드시 통제하여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92</p>	<p>35년생 자연스러운 것이 훨씬 어울린다. 47년생 무모한 실행은 많은 시간을 낭비할 뿐이다. 59년생 단순해야 집중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71년생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생길 것이다. 83년생 숙안은 후회나 실패를 몰고 올 것이다. 95년생 보류되어 왔던 것을 재개하는 마당이다. 행운의 숫자 : 24, 63</p>